

“내란 종식” vs “국민 섬길 것” vs “양당 구조 무너뜨려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선거운동 나선 대선 후보자들

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
판교서 AI·IT 개발자들과 미팅

김문수, 가락시장 찾아 현장행보
민주당·진보당 ‘가짜진보’ 발언

이준석, 여수 국가산단 방문
“새로운 정당에 지휘봉 넘겨줘야”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총 7명이다.

이날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사용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5월 29~30일에 사전투표, 6월 3일에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에 등장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시스

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시민 사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동해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개발자들과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탈락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라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구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5시 수

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열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국회의원 박종권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며 자유통일을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

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을 언급하며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짚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후폭풍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고 통합·혁신 행보를 보이기 위해 35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딛발’인 대구로 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공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서울고법, 일정 추후 지정으로 변경
대통령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해석 갈려
헌법학계 “당선 이후론 재판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후보와 동등하게 선거 유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언제 지정될 지 모른다는 의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열고, 내달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대선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13일과 27일로 잡혀있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5개 재판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은 대선 전까지 중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결국 이날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사실상 해소됐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든 재판 일정이 순연된 덕에 이 후보는 대선 유세 중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 진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헌법 84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란 형사 사건의 경우 소(訴)를 제기(재판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해당하므로 내란·외환을 제외하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8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재판이 미뤄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 이후 이 후보는 ‘K-과학기술(AI)’을 테마로 판교·동탄·대전을 차례로 방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
공판서 ‘의원 끌어내기’ 증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군 간부가 법정에서 출석해, 증언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오상배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 전 부관은 이날 2차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오전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세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서예진 기자